

개소세 인하여 자동차업계 발빠른 판촉전

내수진작 위해 5%→3.5%로 하향...이르면 이달 적용 완성차 매출 상승 기대...차종따라 최대 288만원 할인

정부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여 발맞춰 내수(內需) 부진을 회복하려는 국내 완성차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수입차 공세에 밀려 고전하던 자동차 업계는 18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방침이 발표되자 화답하듯 추가 할인 판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판촉 전쟁에 들어갈 태세다.

◇2년 만에...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부는 이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로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오는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를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 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당시 승용차 월평균 판매량은 14만7000대로 지원 직전 3개월 평균보다 1만대(7.3%)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리로 월평균 1만대 정도의 승용차 판매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2012년 12월 인하 때도 월평균 11만8000대가 팔려 지원 직전 3개월 평균 10만4000대보다 1만4000대(13.4%) 더 팔렸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105.5)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차 내수판매와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

상마찰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 소비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결정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새차 개소세는 100만원 한도로 1.5%로 깎아주기로 하고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새 차 장만해볼까-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다, 자동차 기업들의 차값 추

가할인까지 겹쳐 차종(車種)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할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하반기가 새 자동차를 장만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보기 드문 적기(適期)가 될 전망이다.

현대차의 경우 개소세 인하에 따라 차종별로 21만~87만원까지, 제네시스는 69만~288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29만원에서 171만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각각 낮아진다.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 모델들에 20만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기존 할인 혜택에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각각 5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아차 설명이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별

도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기존 노후차를 팔고 기아차 스포티지를 구입하는 고객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39만~54만원 ▲기존 할인 조건 80만원 ▲추가 할인 혜택 20만원 ▲노후차 교체 지원 30만원 등을 더해 169만~18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기아차 설명이다.

쌍용차도 티볼리 아머, 코란도 C, G4렉스턴 등에 대해 30만~82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의 프로그램을 마련, 소비자 공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지엠(GM)도 말리부 최대 57만원, 트랙스 최대 43만원, 이쿼닉스 최대 53만원 각각 인하여 판매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기아차광주공장 청소년 '드림토크콘서트'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정찬민)은 18일 광주시 북구 금호중앙중에서 6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 강연 프로그램인 '드림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드림토크콘서트'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기아 챌린지 콘서트'의 하나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멘토의 특별한 강연을 통해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내년 적용 최저임금, 부담 완화 방안 건의하겠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 개최...노동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후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비롯해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다.

위원들은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균화되고 있으

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OECD 평균인 근로자 중위임금의 절반을 넘겼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어 국가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2019년에 적용될 최

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 조사를 통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며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결정방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한 입법화 건의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유스퀘어’ 서비스 품질 1위

광주종합터미널 유스퀘어가 '2018년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KSQI) 고속버스터미널 부문'에서 고객이 가장 만족하는 기업 1위에 선정됐다. 지난 2010년 고속버스터미널 부문이 신설된 뒤 9년 연속 서비스 품질지수 1위를 기록하게 됐다.

유스퀘어는 전국 최초로 터미널 기본 기능과 외식·영화·공연관람·독서 등 문화와 쇼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고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시설환경, 인사, 복장, 용모, 경정태도 등 11개의 평가 항목 중 모든 서비스 환경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유스퀘어측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90.11 (-7.81)	↓ 금리(국고채 3년) 2.09 (-0.01)
↓ 코스닥 810.44 (-9.28)	↑ 환율(USD) 1132.30 (+8.20)



사통팔달 ‘백운 코아루 아펠리스힐’

백운동 일대 197세대 공급...교육·생활편의시설 탁월

광주백운 코아루 아펠리스힐이 오는 20일 광주시 서구 마곡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컨벤션점 인근에 견본주택을 열고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조감도)

아펠리스힐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3개동) 들어서며 197세대(전용면적 71㎡)를 분양한다. 1층 필로티 설계 방식에 최상층 세대를 위한 맞춤형 다락방 특화 설계,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강화했고 흡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구축,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냉·난방 및 조명·가스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500m 이내에 위치한 백운교차로를 비롯, 대남로, 서문로 등과 인접해 도심과

제 2순환도로로 이동이 쉬운 교통 환경을 갖췄다. 백운초교와 서광중, 석산고 등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남구 학원가와도 가까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또 단지 옆으로 6만6224㎡ 규모의 월산 근린공원이 조성돼 생태놀이터, 생태전시관 및 산책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사적·광주공원, 푸른길공원으로도 접근성이 좋다. 무등시장, 남구청, 광주기독교병원, 동아병원 등 인근에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옛 보훈병원 부지의 젊음의 거리 조성 계획, 푸른길역 개발 등으로 백운광장 및 인근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는 평가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전남 중소기업 15곳 일관지원사업 선정

중소벤처부, 수요자중심 지원 전환...자금·기술개발 등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윤용일)는 18일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관지원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일관지원사업은 기존 정부지원사업이 '사업중심 지원방식'이었던 것과 달리 '수요자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기업이 정책자금, 기술개발, 수출지원, 컨설팅 등 해당사업별 개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1번으로 줄였다.

또 개별사업별(17개 사업)로 선정되기 위해 거치던 41단계의 절차를 6단계

로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게 특징이다.

이날 선정된 지역 업체는 안정자금 공급분야 9개사와 스마트공장 도입분야 2개사, 수출역량 우수분야 4개사 등 총 15개사다.

김진형 청장은 “이번 사업은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인 기업중심으로 정부지원정책을 펴나가는 시범사업이다”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데 많은 지역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반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검색청에 '이퍼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퍼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